

미군기지가 음란퇴폐물 '유출기지'

최대규모 공급·판매조직 검거 뒤안

서울지검 남부지청이 7일 적
한 음란퇴폐물 제조·공급조직
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 '독버섯'
처럼 번져있는 저질도색문화의
근모와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
내고 있어 큰 충격을 안겨주고
있다.

한다.

이번 검찰수사에선 또 외국도
색잡지의 대규모 출처가 미8군
신문인 성조지사의 창고로 밝혀
져 미국 도색문화의 직수입 통
로의 일부가 소문으로만 떠돌던
바와 같이 주한미군기지라는 사

이처럼 대량의 도색잡지를 빼내
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.

검찰은 특히 나씨가 △7년동
안 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했
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직원인 안
씨 등에게 매달 20여만원의 용
돈밖에 주지 않은 점 △7년동안
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점 등으
로 보아도 영내 관계자에게 정
기적으로 이익의 일부를 상납했

점조직 유지 단속피해...영내관계자 묵인 의혹

이들로부터 압수한 물품만 해
외국도색잡지 1만5천여권, 음
첩 10만여권, 음란만화 5만여
권, 음란기구 5천여점 등 모두 2
만여점(시가 20억원 상당)에
이르며, 실제로 이들이 그동안
장국의 단속을 피해서 철저한 '점
조직'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
음란물만도 80여억원어치에 이
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음란
물 단속분야에서 최대규모로 꼽

실이 확인됐다.

성조지사 창고에서 도색잡지
를 빼내 판 나명수(49)씨는 검
찰에서 "미국에서 보내오는 이
들 잡지의 자연손실량 4%가 인
정되기 때문에 입고 수량을 줄
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잡지들을
빼냈다"고 진술하고 있지만 매
주 금요일 재물검사를 받아야
하는 나씨가 미8군내 관계자의
묵인 또는 방조 없이 7년 동안

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이와 함께 이번에 적발된 도
서류와 온갖 음란기구 제조·공
급책들은 대개 본명을 사용하지
않고 별명만을 사용할 뿐 아니
라 상호거래 및 연락방법도 밤
중에 길가나 다방에서 잠시 접
선하거나 무선호출기, 온라인계
좌 등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
났다.

〈류재훈 기자〉